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5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8년 무술년 들어 첫번째 백고좌법회인 제35회 백고좌법회를 3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 35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 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창



● 1일차

3월 5일
임재법문
무관스님
조계종 법계위원



● 4일차

3월 8일
특별법문
일우스님
대구 성관암사 주지



● 8일차

3월 12일
특별법문
일장 비구니 스님
화순 유마승가대학장



● 12일차

3월 16일
특별법문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 일시 : 2018년 3월 5일 ~ 6월 12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3월 5일 圓	무관스님	조계종 법계위원	7일차	3월 11일 圓	대주스님	부천 대륜사 주지
2일차	3월 6일 圓	자광스님	불교사회복지 회주	8일차	3월 12일 圓	일장 비구니 스님	화순 유마승가대학장
3일차	3월 7일 圓	양관스님	동화사 승가대학장	9일차	3월 13일 圓	현각스님	원주 성불원장
4일차	3월 8일 圓	일우스님	대구 성관암사 주지	10일차	3월 14일 圓	동봉스님	광주 우리절 주지
5일차	3월 9일 圓	노휴스님	공주 행복도량 주석	11일차	3월 15일 圓	마성스님	팔리문헌 연구소장
6일차	3월 10일 圓	동훈스님	대구 삼보사 주지	12일차	3월 16일 圓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아름답게

2018. 3 | Vol. 279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법왕사
조계종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4층 대적광전 삼신불 좌우에 모실 문수·보현보살 모연중

법왕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삼신불 점안법회를 회향한데 이어 불단의 마지막 불사로 좌우 협시 보살로 지혜제일 문수보살과 실천제일 보현보살상을 봉안합니다. 삼신불에 이어 보살상까지 봉안하면 법왕사 대적광전은 완벽한 도량으로 거듭나며 여법하고 영험한 기도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 동참금 : 1인 10만원
- 사경, 복장물 모실 분은 종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대적광전 신중탱화 모연중

법왕사에서는 복자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에 이어 마지막 불사로 신중단 후불탱화를 모연합니다. 법당을 최적의 기도공간으로 장엄하기 위한 마지막 불사인 신중탱화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참금 : 1인 10만원
- 탱화 하단에 시주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3층 만불전 신중탱화



새롭게 모실 4층 대적광전 신중단



Vol. 279호



- 04 깨침의 향기**
중생은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6 비슬산방**
부처님 출가와 열반제일의 의미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인간의 역사에는 어리석음이 반복된다 · 본원스님
- 12 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26)**
메사부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 16 우리나라 사찰 건축물**
큰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다
- 20 법회이야기 – 팔상성도대법회**
도솔천에서 내려와 진리의 등불 밝히다
- 24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암보다 두려운 치매, 치료 가능한가요?
- 28 법왕사소식**
- 31 법왕사게시판**
- 33 해오름소식**
- 34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2(서기 2018)년 3월 01일 발행 | 통권 279호 | 종무소 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윤,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란합니다.

중생은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이 세상 부모 가운데 자식을 잘 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 교육관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이기는 하나 욕망에 얼룩진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게 당연시되는 추세인지라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위한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녀만 고이고이 기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들의 자녀도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서로서로 의지하고 있는 연기적(緣起的) 존재임을 깨닫고, 자녀교육 또한 그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주는 한 가정ियो 중생은 한 가족입니다. 서로 원망 말고 은혜 갚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자’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자녀를 불성(佛性)을 지닌 주체적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자녀가 불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육아가 되어야 합니다.

신생아는 여러디 여러니 실내 온도를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 습도는 50~70%로 해놓고, 조용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육아도우미 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잤먹이 때 건강이 평생 갑니다. 잘 먹고 잘 재워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 1~2개월부터 쾌·불쾌의 감정이 분명해서 불쾌할 때는 큰소리로 웁니다. 이때 관

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아기 때부터 좌절감을 갖게 되고, 주위 사람을 믿지 못하고, 반항심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겠거니 하며 방심했다간 커서 불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저귀는 될 수 있으면 형짚 기저귀를 채우고 환경 문제 예방차원뿐만 아니라 아토피 발생률도 낮고, 형짚 기저귀를 채우면 자극에 예민해져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일광욕을 시켜주면 감기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집니다.

만 3개월이면 감정이 풍부해지고, 장난감을 주면 좋아하고 손에 잡니다. 만 6개월이면 사팔뜨기 눈이 정상으로 되어 앉혀 놓아도 잘 넘어지지 않고 사람을 알아봅니다. 또 좋고 나쁜 감정이 싹터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크게 울고, 장난감을 뺏으면 싫은 얼굴을 합니다.

6개월부터 서서히 이유식을 하는데, 오곡이 들어간 미음으로 시작해서 점차 야문 것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된장국에 오곡, 갖가지 야채, 멸치, 다시마 등을 넣어서 미음을 만들어 먹이면 아주 좋습니다.

만 7~10개월은 아기의 감정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때이므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을 자주 걸어주면 아기가 말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놀아주면 아주 좋습니다. 아기와 노인은 궁합이 맞습니다. 에너지가 넘

치는 젊은 사람은 아기에게 간혹 위협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늙어서 힘이 없고 사랑이 깊은 노인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자식에게 욕심이 앞서서 못마땅한 점도 보이지만 손자손녀는 그저 예쁘기만 해서, 자식 키울 때와는 사뭇 다른 애정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대가족제도 하에서 조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치고 모난 사람이 없습니다.

10개월에서 첫 돌 무렵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므로 눈을 떼지 않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안전사고는 대부분 집에서 일어납니다. 어른 눈에는 대수롭지 않아보여도 철모르는 아이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돌도 되기 전부터 조기교육을 한답시고 욕심을 내는 부모들이 많은데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뇌가 제대로 발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조기교육 교재들을 들이대 보았자 효과도 없을 뿐더러 아이에게 스트레스만 줍니다. 요새 소아정신과가 성황을 이룬다고 하는데 다 잘못 공들인 탓입니다. <계속>

원공당 정무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부처님 출가와 열반재일의 의미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음력 2월은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재일이 함께 들어 있어 불자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서서 출가하시고, 6년간 고행 끝에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을 얻어 중생들을 위해 45년간 설법하시고 마침내 열반하신 일대사를 이룬바 팔상성도(八相成道)라 일컬으며 부처님 일생의 큰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출가와 열반은 부처님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대목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뜻은 바로 대도(大道)를 성취해 중생을 일깨우기 위함이고, 열반에 드신 까닭도 중생들이 나태와 방일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열반상을 나타내어 중생들에게 십이인연법의 역관도리인 회신멸지(灰身滅智) 무여열반(無餘涅槃)의 장면을 중생들에게 시현하신 것입니다.

깨달음의 경계에선 가고 옴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나시고 열반에 드신 것도 원래는 가고 옴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로서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셨고 열반에 드신 후에도 대자대비로 상주설법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가신 것도 자비방편에 의해 열반을 나뉜 것이지 실지로는 멸도(滅道)하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법화경』의 「여래수량품」에서는 “중생들로 하여금 무상도를 얻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 속히 깨달음의 몸을 얻도록 항상 부처님은 생각하시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매자(每自)의 서원이라 해서 부처님, 보살도 완성의 극치를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고, 거기서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의의를 새롭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저마다 마음 속에 우주적 능력이 잠재해 있고 중생들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몸소 실증하여 보여 주셨던 것이 성도(成道)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부처님이 생존해 계신 때여서 부처님만 의지하면 항상 만사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열반을 통해 중생들의 생로병사를 대신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셨고, 의존심이 많은 중생들에게 생명의 유한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열반에 드셨다고 하는 것이 열반의 본 뜻입니다. 아무리 중생이라 할지라도 본래부터 존귀한 불성을 간직하였기에 원래 평등, 자비, 복혜가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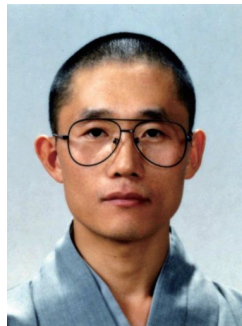
그런데도 인간은 고통과 미망, 또는 무명에 사로잡혀 허상을 실상으로 아는 전도몽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불종자가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불성을 저마다 갖추고 있기에 중생심인 근본생사고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서 우리들 자신이 부처님 세계로 자리바꿈하여 본래의 대자유를 회복하면 참인간인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불성이 동일하므로 평등하고 세상살이는 모두가 연기법에 의하므로 대자비를 실현할 수 있고, 공동체적 삶에서 자신이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타행을 행하여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누면서 불국정도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참다운 자유를 얻으려면 열반사덕인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도리를 잘 알아서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부처님 출가일과 열반제일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진실한 열반과 출가의 법문을 알고 부처님 가르침을 최대한 실천에 옮겨서 바른 삶과 참 행복의 길을 찾도록 다함께 정진합시다.

인간의 역사에는 어리석음이 반복된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해방 후,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어지러운 정치적 혼란, 사상과 이념의 갈등, 극렬한 좌·우익 대립은 내전 양상으로 격화되면서 결국 6·25 사변이 일어나고, 계속되는 정국의 혼미를 틈탄 군사 쿠데타에 이은 군부 독재와 장기집권, 이에 맞서 민주화 시위로 쓰러져간 술탄 희생이 따른 일련의 악순환은, 마치 짜여진 도식과도 같이 아시아, 아프리카며 중남미 국가들이 똑 같이 겪는 유사한 상황이다. 골 깊게 패인 아픈 생채기는 여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 발이 닿은 신대륙 그 어디이던 하나님
의 나라로서 온통 십자가로 덮게 될 것이
다.”

콜럼버스(4차 항해, 1493~1506)가 항해
일지에서 쓴 글이다.

수 천년 전부터 뿌리내리며 정착 원주민
들이 살던 곳을 미지의 땅, 신대륙 발견을
했다며 평화롭게 그들 방식대로 사는 원주
민들과 충돌하여 살상과 폭력으로써 강제
점령하고서, 미개인을 문명화시킨다는 식민
지 개척의 속내는 콜럼버스의 말처럼 기독
교 전파였다.

이슬람 제국에게 유럽 최초로 식민지배
(300년)를 받은 피해의식에서인지 지배당한
만큼 어디선가 다시 갚겠다는 복수 심리 성
향의 작용 때문인지 독립한 스페인은 밖으
로 눈을 돌린다. 십자가를 등에 업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선교사와 정복군들이 식민
지 개척의 리더가 되어 과거 이슬람에게 배
운 그대로 약탈과 방화, 수탈과 살상으로 중
남미 지역을 온통 피로 적시며 무력으로써
개종시켜 모조리 기독교 가톨릭 국가로 만
들어버린다.

16세기 초부터 시작된 이 같은 특급 국
제 강도 행각은 고유한 전통문화를 가진 안

데스 산맥의 잉카왕조(페루)를 일시에 멸망(1532년)시킨다. 스페인 왕의 지원을 받은 전직 돼지치기 사내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183명의 병력을 이끌고 간 자신들을 극진히 환영하던 잉카제국의 왕 아타후알파를 기습적으로 포로 인질로 잡은 피사로는, 한 배 가득 실을 만큼의 금을 모으라며 원주민을 상대로 무자비한 살육을 행하며 엄청난 몸값을 받고서도 약속과는 달리 왕을 살해한 뒤 스페인 정부의 지원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결국 페루는 완전 점령되어 스페인 유럽에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준 대신, 극심한 노역과 착취·수탈로 피폐해진다. 17세기, 수도 리마를 찾았던 카사오 신부가 그 비참한 실정을 보고는 왕에게 전하는 편지를 이렇게 써보낸다.

“폐하의 신민들이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디오들도 똑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이처럼 빠르게 죽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총과 선교사상으로 중남미 침탈

2002년까지 스페인 화폐에 무법자 피사로의 얼굴을 넣었던 걸로 보아 그의 명성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디언의 땅에 흘러들어온 스페인 군은 닥치는 대로 금과 은을 약탈하며, 극심한 노

동착취와 굶주림에 원주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한다. 기록에 따르면, 1519년 2천5백만 명의 인구가 100년도 채 안된 1600년에 들어와서 백만명으로 줄어든다.

EBS는 2008년 1월~2월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들(잉카, 마야, 아프리카 노예) 후손들이, 식민지배자들이 심어 놓은 교활한 술책 탓에 땀 흘려 일해도 여전히 지독한 가난이 대물림되는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그린 ‘살아 있는 자들의 슬픔’을 소재로 방영했다.

참고 자료를 제시하며, 그 자리에 나온 한 여성 사학자(볼리비아대학 중남미사 교수)는 식민지 시절 강제노동 착취에 시달려 숨겨간 이들의 숫자는 8백만명에 이르며 금광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광산 및 황무지 개간과 대규모 농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고자 원주민과 끌려온 아프리카 노예들은 한 번에 36시간~48시간까지 혹사당하며 일해야만 했다. 때문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 하루 1만5천여명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19세기 들어 남미의 페루를 비롯한 다수의 식민국가들이 가나긴 강제 통치를 벗어나 독립한다. 1530~1824년까지 3백년의 시간이 멈춘 듯 흘렀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3백년은 정복지배했던 스페인이 과거 이슬람 제국에게 식민지배를 받은 기간(724~1062)인 3백년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흘린 만큼 시간과 공간적 상황을 달리하며, 다시 피로써 갚고만 셈이다.

그러기에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은 “인간 역사는 흐르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어리석음”이라고 하였던가. 그후 볼리비아, 에콰도르, 푸에르토리코 등 중미지역 국가들은 라킨아메리카 식민지 해방운동의 기수 볼리바르에 의해 1952년에 와서야 독립한다.

4백년 이상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배국으로서 당시 20세(결혼 풍습 연령)를 한 세대로 치면 무려 20대가 넘도록 걸쳐 피를 내리 이으며 장기 체류, 국제 강도 국가의 탄압을 받은 즉, 그 땅의 토착 종교든, 자생 문화든, 사회관습이든 뿌리채 뽑히고 철저히 파괴되면서 식민지화 되었다.

열강의 탐욕이 불행한 식민지시대 태동
스페인과 인접한 이베리아반도 포르투갈이 콜럼버스를 선두로 인디언 땅 정벌에 수많은 탐험, 모험가들이 가슴을 설레며 이상 낙원, 유토피아를 찾아 떠난다. 아마존 유역 브라질을 점령하며 차지한 베스푸치(1510년), 인도대륙을 통째로 집어삼킨 바스코 다 가마(1512년), 푸에르토리코를 강탈한 환 판세 리옹(1513년), 찬란한 마야문명을 꽃피운 멕시코 아즈텍을 정복하여 유카탄 반도를 짓밟은 코테즈(1519년), 태평양의 군도 세부섬에 닿을 내리면서, 훗날 필

리핀(4백년 지배)을 아시아 제1의 가톨릭 국가로 만든 마젤란 등이 써내린 정복사는 열강들의 탐욕을 부추기며 불행한 식민지시대를 태동시킨 서막이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점령군이 물러간 뒤, 독립국가는 거의 예외가 없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식민지배자들이 통치수단으로 심은 제도와 구조적인 잔재 청산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의 이념 노선과 맞물린 이해관계 속에 부족·인종·동족간에 빚은 유혈 충돌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어지러운 정치적 혼란, 사상과 이념의 갈등, 극렬한 좌·우익 대립은 내전 양상으로 격화되면서 결국 6·25 사변이 일어나고, 계속되는 정국의 혼미를 틈탄 군사 쿠데타에 이은 군부 독재와 장기집권, 이에 맞서 민주화 시위로 쓰러져간 숭한 희생이 따른 일련의 악순환은, 마치 짜여진 도식과도 같이 아시아, 아프리카며 중남미 국가들이 똑같이 겪는 유사한 상황이다. 골 깊게 패인 아픈 생채기는 여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반면, 식민지배한 피의국으로서 불행의 씨앗을 뿌린 나라와 그 중심의 인물들은 그로 인해 얼마나 부강해지고, 풍요를 누리며 과연 행복하도록 잘 살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두고, 그들의 생애를 추적·

조명하며 방영한 EBS 교육 프로그램(앞에서 언급)에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인다.

“신대륙을 발견·개척, 식민지배를 함으로써 자국에 부를 안겨준 것도 한 때였을 뿐, 지배 점령의 원조격인 콜럼버스·코렌즈(급사), 피사로·마젤란(피살) 등 엘로다(황금)를 찾아 피로 적신 정복지에서 황금을 얻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다지 평탄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했다. 황금에 눈 먼 나머지 도리어 황금 때문에 얽히고설켜 지배당하며 살아야 했다.”

식민지배국의 종주국, 스페인·포르투갈을 살찌운 데 자극 받은 유럽 열강들은 앞다퉈 약소국을 식민지화 하고자 힘을 쏟으며 약소국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1604년 프랑스의 캐나다 식민지화를 발판으로 하여, 1619년 아메리카 흑인노예 시장과 무역이 형성되고, 버지니아 제1차 식민지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급속도로 성장한 북미대륙 농경지는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수백만 명의 노예들의 일터가 되면서 1790년에는 버지니아에만도 20만명이 강제노동을 하며, 1869년 막대한 이권에 몸이 달은 프랑스와 영국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식민지 주도권을 놓고 식민지배 전쟁까지 치르며 국력을 소모하는 사이,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러시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탓에, 이들 나라처럼 식민지 차지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과거 분할된 군소 국가를 하나의 독일로 통일한 비스마르크(1815~1898)는 수백 년 지속된 유럽 국가들의 패권장이 된 싸움과 내전(16~18세기)으로 약화된 국력을 회복하고 주변국들과는 달리 내치에 힘쓰면서 겉으로는 선린외교를 펼치는 한편, 실속 있는 경제력 향상과 군사력을 증강시킨다.





베사부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2018년 2월호, vol. 278)에서는 보살(수메다)이 시키 부처님(연등불로부터 20번째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시키 부처님은 마라의 군대를 패배시키고, 최고의 정등각을 얻은 후, 법의 바퀴를 굴려서 많은 중생을 통찰로 이끈다. 그때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린다마'라는 왕족이었는데, 시키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상가에 많은 가사와 코끼리를 보시한다. 그러자 시키 부처님은 '아린다마'에게 '미래에 고타마 붓다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시키 부처님은 7만 년 동안 세상에 머물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한 후, 앗사숲 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파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부처님(dipank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싸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하여 21번째의 붓다인 시키 붓다(sikhi-buddha)에게 수기 받는 내용을 불종성경(Buddha-vamsa)을 통해 보기로 한다. [불종성경(Buddha-vamsa)_(CST4: KN-Bvm, ch.23, vs.1-30)의 역]

*(아래 주석 1번 참조)

1. 베사부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2]_그 만다점(maṇḍa-kappa)에 동등한 이가 없고, 견줄 이가 없는 사람인 ‘베사부(vessabhū)’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의 지도자가 출현하신다. 불타오르는 탐욕의 불, 갈망들의 정복에 의해, 나가(nāga : 베사부 부처님)께서는 족쇄(bandhana)를 잘라 버리고,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vs. 3-6]_세상의 지도자이신 베사부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자 8만 꼬띠(8천억)의 중생들에게 첫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세상에서 연장자이고, 인간 중에서 군주이신 베사부 부처님께서 [성을떠나 왕국 [여기저기]에서 유행하고 있을 때, 7만 꼬띠(7천억)의 중

생들에게 두 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그 베사부 부처가 많은 사건을 물리치고, 신통력을 행하자, 신들을 포함하는 일만세계의 인간과 신이 모인다. 매우 경이롭고, 몸의 털이 곤두설 정도로 놀라운 [신통력을 본 60 꼬띠(6억)의 신과 인간들은 깨닫게 된다.

[vs. 7-9]_위대한 성자이신 베사부 부처님에게는 세 개의 모임이 있는데, 번뇌(āsava)가 파괴되고, 흠이 없으며, 마음이 평화로운 그러한 모임이다. 첫 번째 모임은 8만명의 비구로 구성되고, 두 번째 모임은 7만명의 비구로 구성된다. 세 번째 모임은 6만명의 비구로 구성되는데, 나이 드는 등의 두려움이 없고, 위대한 성자의 합법적인 [제자들이다].

_(아래 주석 2번 참조)

2. 수기

[vs. 10-11]_그때 나(고파마 부처님)는 수닷사나(sudassana)라는 왕족(khattiya)이었는데, 위대한 영웅(mahāvira : 베사부 부처님)을 초대한 후, 매우 값비싼 보시를 한다. 그리고 음식과 음료, 가사옷에 의해서 상가와 승자(베사부 부처님)에게 존중의 예를 올린다. 동등한 이가 없는 그 베사부부처님의 최고의 법륜이 굴려지자, 그 훌륭한 법을 들은 후, [나는 출가하기를 바란다.

[vs. 12-14]_밤낮으로 게으름 없이 큰 보시를

행한 후, 출가의 자질을 갖추고 나서, 승자(베사부 부처님)의 회상에서 출가한다. 바른 행위의 자질을 갖추고, 의무와 계에 집중하고, 일체지를 찾으면서 승자(베사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신심과 희열감에 이르자 나는 스승이신 부처님에게 예경을 한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에게 희열이 일어난다.

[vs. 15-16] [내가] 물러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아신 후, 정등각자(베사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부터 31겁 후에 이 [수닷사나는] 붓다가 될 것이다.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앓싸타(assattha)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깨닫고, 큰 명성을 얻게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māyā)’라 하고, 아버지는 숫도다나(suddhodana), 그리고 그는 고타마(gotama)가 될 것이다. 켈리따(kolita : 대목 건련)와 우빠똘싸(upatissa : 사리똘싸)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아난다(ananda)라는 시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khemā)와 우빨라완나(uppalavaṇṇā)가 그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앓싸타(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찌따(citta)와 하탈라와까(hatthā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웃파라(uttarā)와 난다마따(nandamātā)*가 그의

상수 재가 여성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타마 붓다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_*(아래 주석 3번 참조)

비할 데 없는 위대한 성자(베사부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합장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베사부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치 [지금]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자 [나중에 좀 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베사부부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_*(아래 주석 4번 참조)

[vs. 17] 내[수닷사나 = 미래의 고타마 부처님]가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욱더 기뻐지고, 10바라밀(pārami)을 충족하기 위한 결의를 더욱더 다진다.

3. 베사부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18-20] 위대한 성자이신 베사부 부처님

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아노마(anoma)이고, 수빠띠따(suppatita)라는 왕족(khattiya)이며, 어머니는 야사와띠(yasavati)이다. 그는 6천년 동안 집에서 머무는데, ‘루찌(ruci), 수루찌(suruci), 라띠왓다나(rativeddha)’라는 세 개의 뛰어난 궁전을 가지고 있다. 3만명의 아름답게 장식된 여인들이 있으며, 부인의 이름은 수찌따(sucittā)이고, 아들은 수빠부다(suppabuddha)이다.

[vs. 21-22] 인생의 네 가지 특징적인 모습(cattāro nimittā)을 본 후에, 가마를 타고 출가한다. 그리고 그 최고의 인간(베사부 부처님)은 6개월간 고행정진을 하신다. 세상의 최고 지도자이고, 위대한 영웅이고, 가장 뛰어난 사람인 베사부 부처님은 범천의 권청이 있자 아루나사원(aruṇa-ārāma)에서 범의 바퀴를 굴리신다.

[vs. 23-25] 대성자이신 베사부 부처님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소나(sona)와 윗따라(uttara)이고, 시자는 우빠산따(upasanta)이다. 최고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라마(rāmā)와 사말라(samālā)이다. 그 세존이 깨달은 나무는 마하살라(mahāsāla)라고 불린다. 으뜸가는 재가 남성신자는 소티까(sotthika)와 람바(rambha)이고, 으뜸가는 재가 여성신자는 고타미(gotami)와 시리마(sirimā)이다.

[vs. 26-28] 그 베사부 부처님의 신장은 60라타나(27m)인데, 황금기둥과 같다. 몸에서 빛이 발산되는데, 마치 밤에 산에서 발생한 불과 같다. 그 대성자의 수명은 6만년 정도인데,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 그 베사부 부처님은 법을 널리 확산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성취 정도에 따라] 분류한 후, 법의 배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열반에 드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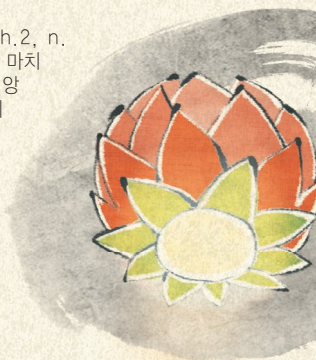
[vs. 29-30] 아름다운 사람들(붓다와 그 제자들), 생활방식, 행동거지 등등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형성된 모든 것은 공하지 아니한가? 뛰어난 승자이고, 스승이신 베사부 부처님은 케마사원에서 열반에 드신다. 사리는 여러 지역에 퍼진다. <계속>

*주석1: 여기의 불종성경은 세존이 정각 후 처음 자신의 고향인 까뻬라와투를 방문할 때 자신의 친족들에게 이 중신통을 보인 후에 설하였다고 한다. [KN-Bvm-a-gaṇṭharambha-kathā]

*주석2: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큰 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3: 불종성경(KN-Bvm ch.2, n. 69)에서는 윗따라와 난다따를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기록하지만, 양 곳따라 니까야(AN1, n. 262)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주석4: 원문의 계송 13-14번에서는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되어 있는데, 끝단나 부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vs 11-21)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큰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찰은 고구려 소수림왕이 375년에 지은 초문사(肖門寺)라고 한다. 또 같은 시기에 아도 화상을 위해 지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찰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월만큼 사찰의 모습도 변하였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찰은 일주문(一柱門), 천왕문(天王門), 불이문(不二門), 전각(殿閣), 선원(禪院), 강원(講院), 율원(律院), 요사채, 후원(後院), 해우소(解憂所) 등으로 되어 있다.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은 사찰 입구에 있는 문이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모셔진 곳들은 전(殿)이라 하고, 산신 등을 모신 건물은 각(閣)이라 한다.

통도사 영산전





법주사 팔상전

천불전(千佛殿)

부처님이란 진리를 깨달은 이를 의미함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천불씩 존재한다는 의미로 천불전이라 이름한다. 천불전에는 구류존불(拘留孫佛), 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 가섭불(迦葉佛),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미륵불(彌勒佛)을 위시하여 누지불까지 현겁천불을 모시며, 과거 장엄겁천불, 현재 현겁천불, 미래 성수겁천불의 삼천불을 모신 사찰도 있다.

영산전(靈山殿)

영산전은 영산회상을 재현해 놓은 곳으로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시던 광경을 묘사한다. 석가

모니부처님과 10대 제자, 16나한 또는 5백나한을 모시기도 하고,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를 후불탱화로 조성한다.

팔상전(捌相殿)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단계로 구분하여 묘사한 팔상도를 봉안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팔상전이라 부르는데 팔상탱화를 봉안하고, 존상을 모실 경우에는 석가모니부처님과 함께 왼쪽에 미륵보살, 오른쪽에 제화갈라보살을 모신다. 미륵보살은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 미래에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부처님이 되실 분이고 제화갈라보살은 아득한 과거 석가모니부처님이 수행자이던 시절 장래에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신 분이다. 따라서 석가모

니부처님과 더불어 이 두 협시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를 상징하고 있다. 범주사, 쌍계사, 운흥사, 선암사, 범어사, 보경사 등의 팔상전이 알려져 있다.

원통전(圓通殿)

중생구제를 위한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대 중들에게 가장 친근한 보살인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을 모신 전각이다.大悲殿, 보타전(普陀殿)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주불전일 때는 원통보전 또는 원통전이 라 부르며, 부속 전각일 때는 관음전(觀音殿)이라 부른다. 남순동자와 행상용왕을 협 시로 모셔져 있고 후불탱화로 천수천안관세 음보살도나 수월관음도 혹은 아미타불화를

봉안한다. 송광사 관음전, 통도사 원통전, 범주사 원통전, 선암사 원통전, 범어사 관음 전 등이 대표적이다.

지장전(地藏殿)

지장전은 중생구제의 큰 원력을 세운 지장 보살(地藏菩薩)을 모신 전각이다. 그러나 지 장보살이 지옥중생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협 시인 도명존자 및 무독귀왕 이외에도 염라 대왕을 위시한 지옥의 시왕상(十王像)을 봉 안하고 있어 명부전(冥府殿)이라 더 많이 불 린다. 지옥시왕(地獄十王)은 인도 고대신화 에 나오는 사후세계의 지배자인 야마왕이 불교에 들어와 지옥을 다스리는 염마왕이 되었다. 그것이 중국의 도교 영향을 받아

파계사 원통전





용문사 지장전

10가지 지옥과 그곳의 왕을 설하는 시왕사상으로 발전하면서 오히려 시왕 중에 한 분으로 변모하였다. 시왕의 각 명호는 진광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태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 등이다.

응진전(應眞殿)

응진전은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신 곳으로 응진이란 ‘존경받을 만하다’, ‘공양받을 만하다’라는 의미이다. 또한 나한전(羅漢殿)이라고도 하여 석가모니불의 직제자 가운데 정법을 지키기로 맹세한 16나한이나 경전결집에 참여했던 500나한을 모시기도 한다. 16나한의 각 명호는 빈도라발라사, 가낙가벌차, 가낙가발리타사, 소빈타, 낙거라, 발

타라, 가리가, 벌사라불다라, 술박가, 반탁가, 라호다, 나가서가, 인게타, 벌나바사, 아시다, 주다반탁가 등이다.

나한은 부처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미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성자이므로 초자연적인 신통력과 더불어 독특한 표정과 자유스러운 자세를 갖고 있다. 또한 나한은 미래불인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라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분들이라 민간신앙에는 무수한 설화에 등장하며 서민들의 기복신앙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500나한을 모신 곳으로 유명한 곳은 금산사 나한전, 옥천사 나한전, 기림사 오백나한전, 송광사 나한전 등이다.

도솔천에서 내려와 진리의 등불 밝히다

팔상성도(八相成道)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나타내어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부처님이 태어나서 열반하실 때까지의 중요한 행적을 여덟 단계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고 해서 팔상(八相)이라 한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는 곧 그 자체로 불교의 요체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불자들은 불교에 대한 믿음을 더하기 위해 팔상성도를 즐겨 그렸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팔상도는 인도 녹야원에 남아 있는 돌로 새긴 그림이다. 중국 원강(雲岡)석굴에는 5세기 무렵에 그린 팔상도가 있다.

특히 불교의 4대 명절에 속하는 부처님 출가제일(음력 2월 8일)과 열반제일(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매년 음력 이맘 때이면 각 사찰에서는 팔상성도대법회를 봉행한다.

1)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수메다라는 수행자가 연등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이 기회에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리라 깊이 다짐을 하며 연등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 하였으나 공양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때 한 여인이 들고 있는 꽃 일곱 송이를 간청해 산 수메다는 그 꽃을 연등부처님께 바쳤고 부처님께서도 수메다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마음을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해 대중이 바친 꽃을 허공에 떠 있게 하셨다.

그때 마침 연등부처님과 제자들이 지나는 길에 진흙 웅덩이가 있는 것을 본 수메다는 진흙 웅덩이 위로 자신의 머리를 풀어엮드리며 언젠가 자신도 지금의 연등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다짐하였다.

2)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흰 코끼리가 태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
을 한 마야 부인은 달이 차서 출산할 때가
되자 고향인 테바다하로 향한다. 도중에 위
치한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마야 부인은 자
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아무런 고통이
나 상처를 받지 않고 사카족의 왕자를 낳게
되니 이 날이 음력 4월 8일이었다.

이 아기는 낳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
我獨存)’이라 외쳤다. 정반왕은 태자의 이름
을 고타마 싯달타라 지었다. 태자가 태어나
자 나라에는 땅이 편편해지고 마른 나무에
꽃과 잎이 피어나는 등 서른두 가지의 좋은
조짐이 나타났다.

를 흐리는 소의 모습 그리고 흙 속에 꿈틀
대는 벌레를 쪼아먹는 새의 모습을 보게 된
다.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염부나무 아
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었다. 이를 지켜본 정
반왕은 태자를 세상과 더욱 멀어지게 해야
겠다고 생각하였으나 태자의 가슴 속에 자
리한 고뇌는 깊어만 갔다. 성년이 된 태자
는 어느 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 위
해 몰래 성문 밖으로 유람을 나섰다. 그리
고 동문, 서문, 남문에서 각각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보게 되었고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번민하던 태자는 다음날 북문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출가 수행 중인 사문을 만나게 되
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출
가 수행자에게서 찾게 되었다.

3)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12세 되던 어느 봄날, 태자가 부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석하였다. 그때 태자는 일에 지
친 고단한 농부들의 모습, 채찍을 맞아 피

4)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싯달타의 나이 스물아홉이 되던 해에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고 태자는 모든 사람이 잠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든 한밤중에 마부 찬타카를 깨워 애마인 칸타카를 타고 카필라 성벽을 뛰어넘어 동쪽을 향하여 달렸다. 왕궁이 멀어지자 태자는 말과 마부를 돌려보내고 사냥꾼의 옷을 바꿔 입고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은 뒤 드디어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당시 이미 높은 명성을 얻고 있던 아라라 칼라마와 옷다카 라마꽃타 등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싯달타는 곧 스승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는 스승들에게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산림에 들어가 6년간의 엄격한 고행생활에 들어간다.

5)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너무 엄격한 고행에 몸이 쇠약해져 죽음 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6년의 고행에도 부처님은 아무런 문제의 해결도 얻지 못한다. 하지만 극단적인 고행이 도리어 인간의 육신을 괴로하게 하여 수행에 방해가 됨을 간파하고 과감하게 고행을 포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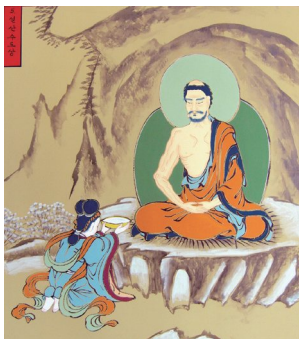
게 된다. 기나긴 고행으로 노쇠한 부처님은 우루벨라의 네란자라강에서 목욕을 단정히 한 뒤 목녀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얻어 마신 뒤, 보리수 아래 길상초를 깔고 깊은 명상에 잠긴다.

6)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마왕 파순은 궁전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의 왕국이 모두 무너지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깬다. 그 원인이 바로 수행자 싯달타가 곧 정각을 성취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임을 안 그는 자신의 세 딸을 보내 부처님을 유혹하는 등 온갖 계교를 부려 방해하려 했지만 실패한다. 이에 화가 난 마왕은 대군을 이끌고 부처님을 공격하지만 그의 위력 앞에 항복하고 만다. 모든 마왕의 항복을 받은 싯달타는 드디어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크나큰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셨다. 이때가 부처님이 35세 되던 해인 음력 12월 8일 성도절이다.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7)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탐욕에 허덕이는 중생을 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로 결심하신 부처님은 우선 자신이 지난날 배움을 받았던 아라라 칼라마와 웃다가 라마뽏타에게 법을 설하려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이에 앞서 함께 고행수도를 했던 다섯 수행자가 있던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가 그들에게 설법을 시작하였다. 이 설법을 부처님이 행한 최초의 설법이라 하여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고 한다. 얼마 후, 아사라는 청년과 그의 친구들이 출가하였고 이들을 찾으러 왔던 아사의 부모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또 당시 가장 이름 있는 종교가였던 가섭 삼행제에게 가르침을 설해 그들과 그들의 제자들을 받아들였다. 또 빔비사라왕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퍼실 수 있는 사원을 마련해 주었는데, 바로 이것이 최초의 사원인 죽림정사이다. 몇 년 후 부처

님께서는 고향인 카필라국에서 부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때 10대 제자인 아난과 라훌라, 아나율, 우팔리 등이 출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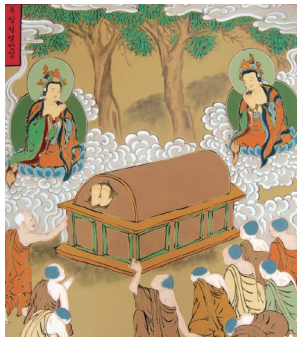
8)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80세에 이른 부처님은 바이샬리 근처의 죽림촌에서 아난다와 단 둘이서 최후의 우안거를 지내게 되는데, 이 우안거에서 부처님은 매우 위독한 병에 걸린다. 부처님은 이 고통을 참고 견뎌내지만 근심한 아난다는 부처님의 별세 후에 무엇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묻게 되고 이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유명한 부처님의 열반유혼이다. 자신의 입멸이 가까이왔음을 안 부처님은 바이샬리 근처의 모든 비구를 모아놓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뒤, 구시나가라로 최후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 부처님은 고통을 참으며 아난다와 함께 구시나가

라에 이르러 사라나무 숲으로 들어가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고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두고 발 위에 발을 포갠 자세를 취한 다음, 선정에 든 채로 열반에 들었다. 이날이 음력 2월 15일로 열반제일이다.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암보다 두려운 치매, 치료 가능한가요?



나이 들은 충실하게 인생 여정을 걸어왔다는 자랑스러운 결과지만 나이 들면서 찾아 오기 쉬운 치매는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큰 복병이다. 한 언론사가 우리나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이가 들수록 암보다 치매를 더욱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난 상태이다. 치매는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크게 시간, 계절 등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언어장애,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되거나,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잊어버리는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망상이나 환각, 우울증 및 성격변화 등의 정신행동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치매의 종류

치매는 뇌 부위에 있는 많은 신경세포들이 줄어들고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돼 나타나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진 것이 원인에 되어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가 있다. 약물, 알코올, 우울증, 감염성 뇌질환, 갑상선 질환 등 대사성 질환 및 두부의 상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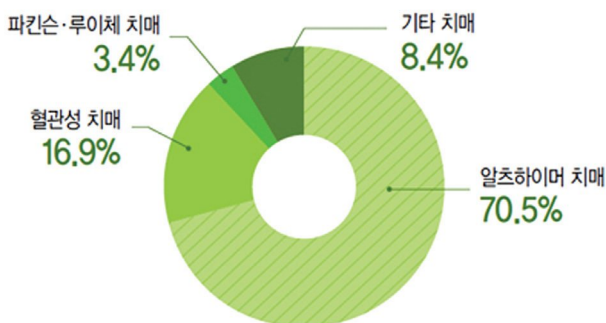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환자의 약 70%이고 아주 가벼운 기억장애로 시작해서 언어장애, 인지장애, 판단장애 등을 보이게 된다. 혈관성 치매는 인지능력이나 정신능력이 조금 나빠졌다가 그 수준을 유지하고 또 갑자기 조금 나빠졌다가 그 수준을 유지하는 단계적 양상을 보이며 치매환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반면 알코올성 치매는 균형을 잡는 소뇌에 먼저 영향을 주며 건강한 음주습관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치매 vs 건망증

‘차 문은 잠겼다’, ‘반지는 어디에 두었지’ 등 무엇인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게 된다. 보통의 어른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억력 감소는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경험의 일부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잊어버린 사실을 스스로 안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 반면, 치매환자의 경우 뇌의 손상이 원인임으로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리고 이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주말 저녁 7시에 식사약속을 했는데 저녁 몇 시에 식사약속이 있었는지를 잊었다면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고 식사약속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기억력 감소는 다시 시간이 지나거나 힌트 등을 통해 그 사건이나 경험이 생각일 수 있지만 치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사건이 다시 기억나지 않으며 기억력의 문제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지남력(시간·장소나 사람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등 다른 인지기능의 장애를 동반한다.

치매는 한 번 발생하면 치료할 수 없는 것일까?

치매는 주로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초래되므로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매의 10% 정도는 치료 가능하다. 노인 우울증, 뇌의 경막을 통과하는 정맥손상에 의해 나타나는 경막하 출혈, 비타민 B12의 결핍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핍성 질환, 알코올 등에 의해 발생한 치매는 치료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의 치료를 놓치면 뇌가 구조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나온 치매 치료제는 무엇일까?

현재까지 허가된 치매 치료제는 원인을 ‘치료’ 하는 약물이라기보다는 치매의 인지기능을 완화시켜주는 약물로 주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국내에 허가된 성분은 아세틸콜린분해 효소억제제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MDA(N-methyl-D-aspartate) 수용체 길항제인 메만틴이 있으며 이중 도네페질은 혈관성 치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뇌세포 파괴로 뇌 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감소하게 되는데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는 이들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한다.

한편, NMDA 수용체 길항제는 글루타메이트가 작용하는 NMDA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 뇌의 학습 및 기억능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약물치료와 우울, 불안, 환각, 망상 등의 정신 행동 증상에 대한 치료 및 기억재활 등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비 약물치료를 함께하면 치매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약물에 의한 치매의 치료는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시작해야 하며 보호자가 환자의 약물복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건강한 식사,
적절한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 활동과 사회활동을
치매 예방의 주요한 요소로 꼽는다.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한 가지 약물을 사용해서 효과가 없거나 반응이 감소할 때 또는 심한 부작용을 나타낼 때 다른 약물로 전환하게 된다. 이들 약물들은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을 나타내므로 처음 투여시 최저 용량에서 점차적으로 증량하여 권장 유효용량을 유지해야 한다.

나와 가족까지 황폐화시키는 치매는 예방할 수 없을까?

전문가들은 건강한 식사, 적절한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 활동과 사회활동을 치매 예방의 주요한 요소로 꼽는다. 즉 오메가 3 등의 좋은 지방이나 비타민 섭취 및 항산화 식품 등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지나친 알코올 섭취나 흡연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조깅, 산책 및 집안일 등을 통해 신체활동과 자원봉사 등 타인과 함께 하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적절히 치료하여 그 위험인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예방 캠페인으로 어른들을 위해 ‘3권·3금·3행’의 치매 예방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권하는 3가지로는 운동(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건강한 식사(생선과 채소 등), 독서(부지런히 읽고 쓰기)이며 3가지 금할 것은 절주(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기), 금연, 뇌손상예방이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로는 건강검진(혈압·혈당·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기)과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소통하기, 정기적으로 치매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다. 즉,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치매의 악화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왕사 소식

제35회 백고좌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제35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는 법왕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회로 지난 20여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해왔으며 때로는 연 2회를 봉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 35회를 맞이하는 백고좌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봉행



법왕사에서는 3월 2일 무술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법왕사 광장에서 달집 태우기 및 소원성취 기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무술년 한 해 마음에 담고 있는 소원을 편지지에 적어 성취를 기원하고 액소멸을 발원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에 3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무술년 입춘기도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2월 4일 2018년 무술년 입춘일을 맞이하여 당일 기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올해 입춘시는 2월 4일(음 12월 19일) 오전 6시 28분이었는데 1백여 불자들이 기도에 동참하였으며 이날 기도법회 후 동침자 전원에게 입춘방과 부적을 나눠 드렸습니다.

3월 24일부터 팔상성도 특별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24일(음 2월 8일)부터 3월 31일(음 2월 15일)까지 8일 동안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팔상성도에 따른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생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되새겨 더 깊고 넓은 신행의 세계로 들어가시고 무술년 한해 불보살님의 크나큰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수 향일암 방생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무술년을 맞이하여 새해 음력 1월 10일(양력 2월 25일) 여수 향일암에서 선상 방생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방생법회에는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였는데 여수대교에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거북이 방생을 한 다음 향일암을 참배 하였습니다.

KT 진여회 2월 정기법회 봉행

KT 진여회(회장 신홍준) 정기법회가 지난 1월 18일 오전 10시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영가 위한 단집 연 모연 중



법왕사에서는 49재시 영가를 태우는 단집 연 불사를 모연하고 있습니다. 단집 연은 49재시 영가를 마지막 전송하는 의식에서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의식을 위한 법구로 꽃상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 영가는 1위당 10만원이며 단집 연 속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정초 7일 기도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무술년 정월을 맞이하여 2월 18일(음 1월 3일)부터 2월 24일(음 1월 9일)까지 7일간 정초 기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1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무술년 한해 불법대로 살기를 서원하고 소원성취를 기원하였습니다.

3층 만불전에 평생위패단 새로이 조성



법왕사에서는 3층 만불전에 새로이 평생위패단을 조성합니다. 지장보살상을 모시고 그 좌우로 평생위패단을 조성하는데 조상영가의 위패를 모실 분은 신청 바람에 주위에도 많이 권선에 주시기 바랍니다.

운불련 정기법회 봉행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대구 운불련 정기법회가 4층 대적광전에서 회원 3백여 불자가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운불련 회원들은 매일 법회에서 법왕사 실장 주지스님의 법문에 동참하여 불자 운전자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의식용 번 불사 모연 중



법왕사에서는 각종 의식에 사용하는 다양한 번 불사를 모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사에는 오방번, 용왕(방생)번, 원왕생번, 시왕번 등 4종으로 각종 의식에 맞게 내걸어 의식의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의식을 더욱 여법하게 하는 법구입니다. 명부 시왕번은 완성하였습니다.

법왕사 소식

다. 명부(冥府)의 시왕(十王)은 진광왕(秦廣王), 초강왕(初江王), 송제왕(宋帝王), 오관왕(五官王), 염라왕(閻羅王), 변성왕(變成王), 태산왕(泰山王), 평등왕(平等王), 도시왕(都市王), 오도전륜왕(五道轉輪王) 등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베트남 다문화 모임 봉행



베트남 불자 1백여명은 3월 3일부터 1박2일 동안 법왕사 본당에서 다문화 모임을 갖고 한국불교를 체험했습니다. 베트남 불자들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공통점인 불교를 매개로 하여 한국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무술년 새해 인등 접수 중



법왕사에서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불을 밝혀온 인등을 새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산신인등, 본당인등, 4층 대적광전 인등, 3층 영가전 인등을 밝히고

싶은 분은 종무소로 접수하시고 현재 등록하고 계신 불자들은 올해 무술년에도 계속 밝힐지 여부를 종무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무사고 기원 기도 회향

법왕사에서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2월 16일(음 1월 1일)부터 3월 2일(음 1월 15일) 정월대보름까지 보름 동안 차량을 소유하신 불자를 위해 무사고 기원 기도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서울 육조사 현웅스님 출판기념회

서울 육조사 현웅스님의 출판기념회가 오는 3월 16일 법왕사에서 시작됩니다. 현웅스님은 '번뇌를 끊는 이야기'란 불교 수필집을 발간하였는데 그 출판기념회를 법왕사 백고좌법회에서 법문하시는 3월 16일 시작으로 하였습니다.

2018년 무술년 설날 합동차례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2월 16일 무술년 설날을 맞이하여 합동차례를 봉행하였습니다. 설날 합동차례는 집에서 차례를 모실 수 없는 불자나 특별히 불교식으로 차례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불자들을 위해 절에서 모든 음식을 마련하여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봉행하는 것인데 법왕사에 위패를 모신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2018년 법왕불교대학 1학기 개강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초중고급 주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3월 13일에, 중급반은 3월 20일에 개강하며 주간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야간반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이은유 심수화 이동채 김용한 윤석수 장영란
심상형 이순이 김기봉 오진환 이대홍 이호승
박철호 문경주 김덕중 이선동 임경덕 조주연
박명숙 강화순 홍영준

사보 도움 주신 분

김정숙 200부 김현주 200부 홍공덕심 300부
노귀주 100부 권오국 200부 민기주 1000부
강춘희 100부 이재학 50부 백법성행 100부
이세정 100부 이창동 100부 KT진여회 200부
이철우·손순재 300부 권순예 4000부 김종황

공양 올리신 분

◎ 대중공양 올리신 분

손국본 안상해(떡국)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신용홍 이희동

◎ 온수매트 보시하신 분

김근태 김점행 황미선 사공순옥

◎ 떡공양 올리신 분

양지영 이규호 신재호 박분남 신지원
이병노 박영민 이진옥 이경자 이재호
박종길 사공순옥

◎ 방생공양 올리신 분

김근태(음료수) 사공순옥(도시락, 떡) 백경원(떡)
구실상화(도시락) 김준범(떡) 관음회 일동(도시락)
신장화(물, 밤) 윤견불심(떡) 박경원(과일)
오진환(과일) 자비회(차량2대) 서진호(과일)
이정상(과일공양일체) 이세정(떡)

◎ 꽃공양 올리신 분

무하스님

◎ 물품 보시하신 분

신명균(생활필수품) 이영석(휴지)

◎ 공양미 올리신 분

산병기 이세정 신지원 김유창 이은유

산석주 심보현 성 윤 윤다경 윤선민
김경혜 정효교 정정교 이승민 차수열
하경순 김일곤 박은희 김상한 이세정
한임지은 한문은식 한세일남

불사 올리신 분

◎ CMS 불사하신 분(~2/22)

강유주 1만원	서필희 1만원	전재필 5천원
강창현 2만원	성점순 1만원	전태일 5만원
강춘희 2만원	손동림 5천원	정순희 2만원
김관용 5천원	손향숙 2만원	정연이 8천원
김명선 2.5만원	송소순 2만원	정옥선 1만원
김명숙 1.5만원	송윤선 7만원	정재순 3만원
김성미 5천원	신인숙 5천원	조희선 2만원
김성자 1만원	신정옥 4.5만원	최진석 5천원
김수라 3만원	심규암 1.8만원	한천숙 1만원
김연자 1만원	심영선 1.5만원	홍경숙 1만원
김옥자 1만원	오재대 1만원	황국희 2.5만원
김정옥 1만원	오창희 1만원	황금석 7천원
김제순 1만원	이숙희 2만원	황덕선 5천원
김현숙 8천원	이호진 1만원	장미야 4천원
나형진 2만원	장명희 5천원	
류윤희 1.5만원	전성복 1만원	

◎ 일년등 올리신 분

216 김오현 217 이종석 218 김종한 219 정인순
220 김영수 221 장종규 222 한선동 223 한금복
224 정규하 225 차수열 226 최말순 227 권태호
228 박준복 229 최일근 230 박경민 231 류시환
232 장재달 233 박석홍 234 최상홍 235 백정석
236 곽희순 237 조규창 238 김수근 239 이정란
240 최병철 241 임인한 242 임창호 243 임필옥
244 이순석 245 임재현 246 송홍점 247 곽창영

◎ 대적광전 인등 올리신 분

343 윤락희 432 신경학 474 정현숙 507 신재민
508 김상민 509 김상수

◎ 단청등 올리신 분

1 세광하이테크 2 이정상 3 정원전설 5 정안식
6 세림P&P(주) 7 성진경 8 신진정밀

9 (주)디에이치하이텍 10 청송악수삼계탕
11 김영자

◎ 영가등 대등 올리신 분

1 이정상·전옥남 복위 2 김영자·최준영 복위

◎ 영가등 올리신 분(복위자)

29 김현혁 30 박일순

◎ 꽃등 올리신 분

26 진정에 27 김주석 28 김수덕 29 김순자
30 신종호 31 박영숙 32 조현갑 33 조민규
34 박대희 35 정정교

◎ 본당 일년등 올리신 분

7 이유태 8 김천엽

◎ 본당 인등 올리신 분

329 김수중 385 김상우 386 정숙희 387 김건환
388 김진주 389 김진호 394 안세현

◎ 대등 올리신 분

1 경북신경외과 2 해안불교미술원 3 김순조
5 이용욱

◎ 산신 인등 올리신 분

266 조영탁 288 송희영 289 송연수 290 송재우
291 송준수 292 홍진기 293 정윤서 294 박은주
295 강주혁 296 조재원 297 김소영 298 김규한
267 이상길

◎ 만불전 1인원불 봉안하신 분

3593 문문은식 3594 천서일남 3595 천이영왕

◎ 오백나한 불사하신 분

128 신지원 129 박은혜 131 정원재

◎ 문수보살 불사하신 분

관중훈 김장남 권민지 권태형 송영선
신현중 김동현 권민기

◎ 담집연 불사 올리신 분

천김광정 천장재만

◎ 법보시 올리신 분

천이영왕(법화경 30권)

◎ 신중탱화 불사하신 분

이승민 이준우 신재호 김현주 신현태
신현욱 신현종 송사백 신재민 정현숙
신경학 김경희 이웅희 성불행 이수동
채의진 김명자 김재용 채드바이요우스키

◎ 용왕번 올리신 분

우보처 하수길 용왕 정현석 이난희 정원재
정서훈

상주호법 위태천신 이희동 이병노 홍경화
이윤술 전숙희 이혜경

좌보처 사가라용왕 김중환 이영란 김근태
김민정 윤옥순 백철기

왕생극락하옵소서

- ◆ 천서일남 영가의 초재가 2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천이준기 영가의 막재가 2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천박영래 영가의 초재가 2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천서상수 영가의 막재가 2월 8일에 있었습니다.
- ◆ 천이성국 영가의 초재가 2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천박점환 영가의 기제사가 2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천김광정 영가의 막재가 2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최재훈님의 조상영가 천도재가 2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천최태호 영가의 막재가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천정규동 영가의 막재가 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천이순도 영가의 기제사가 2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 천장재만 영가의 막재가 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 신재호님의 조상영가 천도재가 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천이영왕 영가의 막재가 2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 천김병준 영가의 천도재가 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천이순곤 영가의 천도재가 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천이을열 영가의 초재가 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 ◆ 천김순이 영가의 막재가 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 ◆ 천이강소 영가의 막재가 2월 27일에 있었습니다.
- ◆ 천박화림 영가의 막재가 2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해오름 요양원 2월 소식



더블유봉사단과 윷놀이

매달 첫째 일요일에 찾아주시는 더블유봉사단에서 2월 설날을 맞이하여 윷놀이를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야~"를 외치며 킁킁한 윷가락을 멀리 던지시고는 박수도 치시며 모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실망도 하셨지만 다 같이 둘러앉아 돌아가며 던져 본 윷놀이는 아주 재미있었고 특히 다 함께하여 더 좋았습니다.



오카리나 연주 감상

두 달에 한 번 오시는 오카리나 봉사자들은 항상 옷까지 똑같이 맞춰 입고 오실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오십니다. 이달에도 역시 예쁜 모습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 보러 오셨습니다. 맑고 고운 오카리나 연주를 들으시며 어르신들은 감상에 젖어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며 노래도 따라 부르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즐거운 라인댄스 시간

신나고 활기찬 웃음치료인 라인댄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쁜 옷을 입은 봉사자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노래와 춤을 선사해주셨습니다. 중간 중간 노래에 맞춰 율동 동작도 함께하고 스트레칭도 함께하여 어르신들의 몸도 풀어드리며 건강한 웃음치료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설날을 맞이하여 전 직원들은 어르신들께 새해인사를 드리며 세배를 하였습니다. 스님은 세배돈도 준비하셔서 드리니 어르신들이 감동하여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 무술년 올 한 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아울러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순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무하스님(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이미용)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씨포터즈봉사단(야외나들이), 친한친구봉사단(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봉사단(놀이치료), 그루터기봉사단(놀이치료),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우쿨렐레공연단(공연활동), 색소폰공연단(공연활동), 더블유봉사단(놀이치료)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수곤 5천원	박경자 5천원
강선옥 5만원	김수라 1만원	박귀분 1만원
강소남 5천원	김수자 1만원	박남희 3만원
강영도 2만원	김수희 1만원	박대희 5천원
고연숙 1만원	김순덕 1만원	박동규 5천원
고재옥 2만원	김순연 5천원	박상용 5천원
구정대 2만원	김순태(황궁주) 1만원	박성숙 5천원
권순득 1만원	김양순 1만원	박성용 5천원
권순미 1만원	김영호 1만원	박수진 1만원
권순영 1만원	김영희 5천원	박순남 5천원
권순칠 1만원	김옥경 1만원	박순영 5천원
권영철 5천원	김옥희 5천원	박원태 1.5만원
권오관 2만원	김외환 1만원	박인철 1만원
권오국 1만원	김용태 1만원	박종규 1만원
권춘자 3만원	김우영 1만원	박종환 1만원
금명섭 5천원	김원형 3만원	박치민 5천원
김건희 1만원	김의목 1만원	박희조 5천원
김경자 1만원	김정규 5천원	반룡사 1만원
김경호 1만원	김정숙 5천원	배수현 2만원
김기덕 2만원	김정숙 5천원	배하수 1만원
김기수 2만원	김정순 3만원	사공관 2만원
김대현 5천원	김정임 1만원	서동남 1만원
김만기 5천원	김정자 5천원	서준석(생인재) 1만원
김명숙 1만원	김주현 1만원	서찬수 1만원
김명옥 1만원	김진성 1만원	성기옥 1만원
김미자 1만원	노수정 1만원	손수연 1만원
김미정 1만원	도순자 1만원	송민경 1만원
김미희 1만원	류윤만 1만원	송정숙 5천원
김민주 1만원	류훈자(지일) 5천원	시명숙 1만원
김봉숙 5천원	문성섭 1만원	신구자 5천원
김성의 1만원	박경란 1만원	신귀화 1만원

신돈식 1만원	이승연(정미화) 1만원	정무시 1만원
신임선 5천원	이승환 5천원	정민경 1만원
신충호 5천원	이옥자 1만원	정숙자 1만원
신홍준 1만원	이용옥 1만원	정순옥 5천원
신화식 1만원	이유태 1만원	정시영 1만원
심규암 5천원	이인순 5천원	정연이 5천원
안경순 1만원	이임숙 2만원	정옥선 1만원
안명희 1만원	이재봉 5천원	정옥수 5천원
안희선 1만원	이전희 5천원	정인순 5천원
양나영 5천원	이점예 2만원	정태교 5천원
양봉률 1만원	이정숙 1만원	정혜숙 1만원
양지영 1만원	이정연 5천원	조규인 1만원
양혜진 1만원	이정옥 1만원	조성자 5천원
양희숙 1만원	이정자 1만원	조영석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정화 1만원	조영주 1만원
오난옥 5천원	이정희 3만원	조정재(장민석) 1만원
용마관음사 3만원	이정희 5천원	진봉희 1만원
우정미 2만원	이종희 5천원	채옥연 5천원
유경희 1만원	이준우 5천원	최분규 1만원
유명옥 1만원	이창수 1만원	최영희 1만원
윤종수 1만원	이현옥 1만원	최윤희 5천원
이경자 2만원	이호동 5천원	최창숙 5천원
이남희 1만원	이효조 1만원	한규매 1만원
이명숙 1만원	임상덕 1만원	한희록 1만원
이병노 1만원	장성규 5천원	허유미 5천원
이병희 1만원	장시원 1만원	호선(정(박)남숙) 1만원
이복희 1만원	장재혁 5천원	홍기학 1만원
이상혁 1만원	장찬규 5천원	홍애분 1만원
이석규 5만원	정경석 2만원	황미선 2만원
이성환 5천원	정경숙 1만원	황영희 1만원
이수현 1만원	정명선 2만원	황학영 1만원

총합계 : 1,935,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강미경 10,000원 무기명 79,080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이은유

◎ 지출내역

가스연료비	: 1,500,000원
간식비	: 342,450원
CMS수수료	: 44,000원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SMS수수료	: 500원
케익 구입비	: 60,000원
자재구입비	: 52,250원
우편요금	: 66,400원
사무용품 구입	: 285,600원

총지출 : 2,395,20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시는 분

김유세요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통

윤봉한 어르신 보호자 : 굴 2박스

오외득 어르신 보호자 : 굴 1박스

서윤수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통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통

정판임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50개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사과 1박스, 박카스 1박스

무하스님 : 야쿠르트 12줄, 바나나 3송이, 떡 1상자

더블유봉사단 : 한과 1박스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백남현 어르신, 장판권 어르신, 이월순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사~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혁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해오름 사람들

● 직원 동정

입사 박태숙 요양보호사, 송근순 위생원
퇴사 김성의 요양보호사, 이효조 요양보호사
정성스럽게 어르신 케어에 애써주신 요양보호
사님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 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원고 보내실 곳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편집실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편집실



법왕사에서는 49재시 영가를 태우는 단집연 불사를 모연하고 있습니다. 단집연은 49재시 영가를 마지막 전승하는 의식에서 영가의 왕 생극락을 기원하는 법구로 꽃상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 영가는 1위당 10만원이며 단집연 속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동참금 : 1인 10만원
- 단집연 속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영가를 위한 단집연 모연중



| 무술년 2018년 소원성취 |

법당 일년등·사업등 동참 받습니다

- 사랑하는 이에게는 애정의 등을
- 돌아가신 분들께서는 왕생극락의 등을
- 소외된 이들에게는 관심의 등을
-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는 쾌유의 등을
- 부모님께서는 보답의 등을
- 불교를 모르는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고마운 이에게는 감사의 등을
- 수험생에게는 학업성취의 등을
- 착한 이에게는 축복의 등을

- 사업등 - 100만원
- 가족등 - 10만원
- 영가등 - 5만원
- 문 의 : 종무소 766-3747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 8일간 팔상성도 특별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3월 24일(음력 2월 8일) 부처님 출가제일부터 3월 31일(음력 2월 15일) 열반제일까지 8일 동안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팔상성도에 따른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특별법회에 두루 동참하시어 무술년 한 해의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원만히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 재** 3월 24일(음 2월 8일) 토요일

◆ **일만배**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8일간)

◆ **회 향** 3월 31일(음 2월 15일) 토요일

◆ **법 문** 오전 11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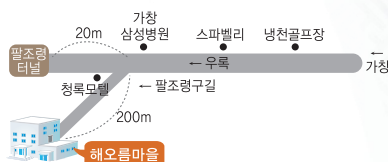
일자	법문주제	법사스님
3월 24일(토) 출가제일	도솔래의상	일진 비구니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
3월 25일(일)	비람상생상	정원스님(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3월 26일(월)	사문유관상	덕문스님(통도사 영축 율학승가대학장)
3월 27일(화)	유성출가상	선진 비구니 스님(대구 보현암 주지)
3월 28일(수)	설산수도상	지철스님(양양 낙산사 포교부장)
3월 29일(목)	수하항마상	경조 비구니 스님(대전 보현정사 주지)
3월 30일(금)	녹원전법상	도일스님(대구 구룡사 주지)
3월 31일(토) 열반제일	쌍림열반상	연담스님(제주 천제사 주지)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오름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급반 2018년 3월 13일 개강 주간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중급반 2018년 3월 20일 개강 야간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